마이클 딘 〈삭제의 정원〉 바라캇 컨템포러리 전시 전경 2021

마이클 딘
〈삭제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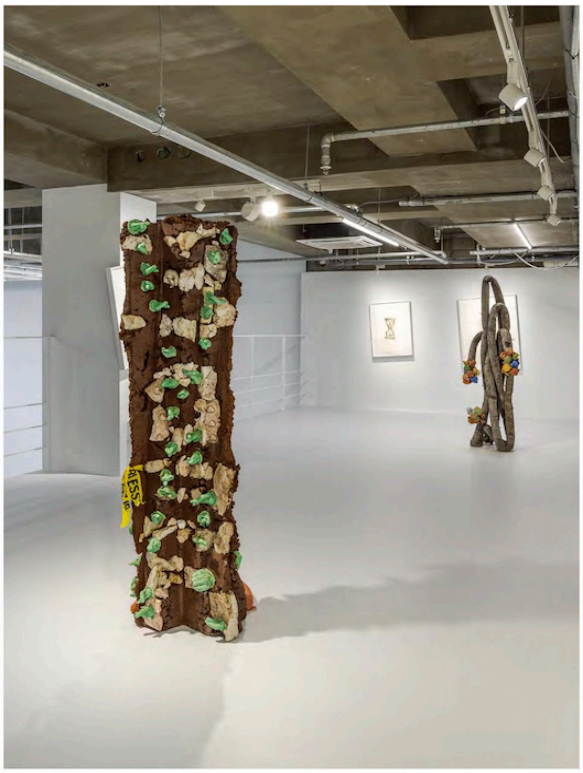
영국의 조각가 마이클 딘의 국내 첫 개인전 〈삭제의 정원〉이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도시의 구석에서 자라난 부서진 콘크리트와 녹슨 건축물의 잔해는 작가의 역사와 언어를 새긴 채 삭제되고 편집된다. 글로 쓴 문자에 물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탐구해 온 그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는 파괴의 엔트로피 속으로 관객을 안내한다. 은밀한 기호가 가득한 마이클 딘의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전시는 5월 30일까지.

견고한 현실에 맞서는 당당한 시어(詩語)

임근혜 | 아르코미술관 관장

불편한 초대

마이클 딘이 국내에 알려진 계기는 2016년도 터너 프라이즈와 이듬해인 2017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로 기억된다. 테이트 브리튼에서 열린 터너프라이즈 후보 전시에서 그는 대표적 작업인 일상 오브제와 결합된 콘크리트 조각 사이에 한화 약 3,000만원에 상당하는 20,436파운드를 전액 1페니짜리 동전으로 전시장 바닥에 깔아놓고 관람객이 밟고 지나가게 만든 작품을 선보였다. 〈2016년 9월 1일 발표된 영국의 4인 가정의 최저생계비 20,436 파운드〉(2016)는 작품 제목이 곧 설명인데, 기준 금액에서 동전 하나를 제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사실이 실제 가난한 노동 계급 출신 작가의 성장 배경과 함께 소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에서는 메인 공간인 215㎡에 달하는 LWL 미술관 아트리움을 비닐 장막으로 감싸서 동선을 제한하고 사람 눈높이에 핍홀을 뚫어 작품이 설치된 내부를 훔쳐볼 수 있게 만든 공간 설치 작품 〈텐더 텐더(Tender Tender)〉(2017)로 주목받았다. 그는 여기서도 다양한 형태의 콘크리트 조각과 스티커, 테이프 등 하위·일상 문화적 요소를 뒤섞어 고전 양식의 미술관을 기괴한 상황극의 무대로 변모시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4일 간의 자가격리라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한국에서의 첫 개인전을 감행한 마이클 딘은 바라캇 컨템포러리 〈삭제의 정원〉 1층 전시장에 바로 위의 두 전시와 헨리 무어 인스티튜트 등에서 선보인 구작들을 전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전시에는 신작 조각 9점 및 드로잉 10점을 선보이고 있다. 갤러리 바깥 도로변에 SORRY와 F***SAKE라고 쓰여진 테이프가 둘러진 가로수와 마치 철거를 앞둔



〈X EDEN X EDEN (Working Title)〉(앞) 콘크리트, 철, 씬 테이프(scene tape) 179 ×46×60 cm 2021, 〈X X (Working Title)〉(뒤) 콘크리트, 철, 자물쇠, 종이책 195×73×65cm 2021
오른쪽 페이지
왼쪽부터 〈X Care (Working Title)〉 콘크리트, 철 184 x 54 x 60 cm 2021, 〈X XXXX XXXX (Working Title)〉 콘크리트, 철 184×60×72 cm 2021 〈X Fuck (Working Title)〉 콘크리트, 철 183×58×68cm 2021 〈X X X (Working Title)〉 콘크리트, 철 183×58×68cm 2021

상점처럼 흰 페인트로 거칠게 X자가 칠해진 유리창은 접근이 금지된 공간으로 초대하는 은밀한 기호처럼 보인다.

콘크리트 시와 조각

마이클 딘은 작업을 '글쓰기'로 시작한 다음, 언어에 형상과 물질성을 부여한다. 자신을 설치미술가, 시인, 타이포그래퍼, 극작가, 철학자라고 소개하는 그는 작업 방식도 다중적이다. 우선 자신이 쓴 텍스트의 철자를 각각 콘크리트로 주조하거나 떠내서 금속판, 플라스틱, 일상 오브제, 자신이 쓴 책 등 다양한 사물이 뒤섞인 사람 크기의 형상으로 만들어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단어를 형성한다. 바라캇 컨템포러리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공간에 가득 찬 작품은 마치 파괴와 무질서가 난무한 범죄나 재난의 현장 또는 쓰레기나 폐기물처럼 보이지만,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이들이 어우러져 만든 'HAPPY BROKE SADS BONES WITH STICKS AND STONES'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반전을 경험하게 된다. 작가는 이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시, 즉 '구체시(concrete poem)'라고 부른다. 이처럼 시어를 물질적 재료로 구상화한 것이 콘크리트 조각이자 콘크리트 포엠인데, 이때 만들어진 결과물은 플라스틱 빈백에 콘크리트 반죽을 넣어 캐스팅한 혀, 어린 아들의 주먹을 떠서 만든 돌기, 사람의 장기 모양 등 알 듯 말 듯 한 정체불명의 유기체적 형상을 띠고 있다.

조각 재료로서의 명사 콘크리트와 구상적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콘크리트를 매개로 조형과 언어를 넘나드는 재치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11살 때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이후 일상에서 강렬한 경험이나 감정과 마주칠 때마다 글을 써내려갔다는 그에게 언어는 가장 필요한 도구이면서도 제대로 갖추기 힘든 하나의 계급적 장벽이었다고 한다. 심한 동북부 사투리를 쓰는 탄광촌 아이가 학교에서 강요하는 표준어로는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시를 대체하는 자기 표현 방법으로 택한 것이 미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스미스 미술대학 입학을 위해 면접시험을 치를 때에도 가방 가득히 자신이 쓴 시를 넣어갔다고 할 만큼 자기표현의 근간은 사실 언어였던 것이다.

이처럼 작가의 언어적 감수성은 〈삭제의 정원(Garden of Delete)〉라는 전시의 제목에서도 드러난다. 아티스트 토크에서 작가가 김남시 교수와의 대화에서 설명했듯이, 제목의 '삭제'는 '긴 소멸의 과정으로서의 엔트로피(entropy as a long destroy)'의 의미로서 전시를 마친 후 작가의 집 정원에 놓였던 조각들이 자연현상에 의해 변화한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목이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쾌락의 정원(Garden of Delight)〉에서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언어적 유희를 즐기는 작가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 쾌락(delight)와 삭제(delete)는 발음은 유사하지만 보스의 그림이 만물이 새로 태어난 창세기의 내용을 다룬데 반하여 전시에 소개된 조각은 정원의 흙속에 파묻힌 채 풍화작용을 거치며 긴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는 역설이 흥미롭다.

한편, 작가는 재료로서의 콘크리트에 '사람의 흔적을 담는' 매체의 의미를 부여한다. 1977년생인 그가 아동기를 보낸 1980년대 중반의 뉴카슬은 당시 대처 총리의 적자 탄광 폐쇄 조처에 항의하는 노조의 장기파업과 실업사태가 이어지며 가난으로 점철된 낙후 지역이었다. 그는 고향을 심장질환으로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장애인 수당으로 가족을 부양했던 아버지와 시커먼 석탄 더미와 회색 콘크리트 건물의 황량한 풍경으로 기억한다. 어린 시절 동네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 표면 위의 얼룩과 낙서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생계를 찾아 떠나간 이웃들을 떠올리곤 했단다. 이러한 기억에서 비롯된 콘크리트의 상징성은 바로 '누군가가 살았던 삶의 흔적'이다. 콘크리트 조각은 이를 시적으로 재현하는 작가의 목소리와 더불어 존재에 대한 물질적 증거가 된다. 또한 도자기용 점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사용하기 쉬워서 '민주적'이라는 점도 그가 콘크리트를 작품의 주재료로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다.

전시, 협상의 장소

이번 개인전을 계기로 열린 작가와의 대화나 과거 인터뷰 자료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점은, 작가 스스로 자신의 성장 배경, 진로 선택, 매체 선택, 전시 구성 등 모든 면면을 언급할 때 '하층 프롤레타리아(sub-proletariat)'라는 계급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노동당 집권 초기인 1998년도에 당시 센세이션 전시를 계기로 유명세를 탄 골드스미스 대학에 어렵사리 입학한 '시골뜨기' 신입생은 애초부터 노동계급 문화를 패션처럼 소비하는 런던 미술계를 비웃으며 그들과 선을 긋고, 일찌감치 폐광촌 출신 노동계급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작업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의 계급의식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유도하는 전시 연출에서 드러난다. 2016년 사우스런던갤러리 개인전에서 기존의 입구를 막고 한참을 우회해서 측면 통로로 진입하게 한 것이나, 이번 서울 전시에서도 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쪽 〈xx xxx xxxx xxx xxx xx xx xx xxx(Working Title)〉 콘크리트, 철 178×53×59cm 2021
오른쪽 〈unfucking titled (quarantine series)〉 종이에 올리브 오일, 립스틱, 시멘트, 84 ×60cm 2021

시야를 가로막는 커다란 구조물과 정해진 동선 없이 작품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하는 불친절한 디스플레이도 같은 의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자가 입주자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반면 임대 세입자는 측문으로 우회하여 들어가도록 설계된 영국 공공주택의 은밀한 계급 차별을 우회적으로 빗댄 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관람객에게 전시가 작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가 담긴 자신의 몸을 통해 전시의 장면과 협상하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작가 개인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작품을 매개로 또 다른 개인으로서의 관람객과 벌이는 '협상'은 일종의 능동적 참여 행위로서 당연한 것에 대한 의심, 다른 방식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순간이 "낯설고 이상한 느낌이 드는 순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한다. 흑백의 톤이 지배하는 탄광촌의 언덕 너머 붉은 태양이 지는 순간의 강렬한 인상, 표준어를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든 학교의 억압적 기억 등... 이러한 낯섦을 마주할 때 흔들리고 깨지고 다시 아물어가는 경험을 전시를 통해 얻기를 원하는 것이다.

마이클 딘의 작업은 콘크리트라는 저렴한 산업 재료에 자신과 가족의 흔적을 아로새길 뿐 아니라, 정문 출입을 허락받지 못하고 측문으로 우회해야하는 세입자와 최저생계비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삶에 목소리와 가시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작업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이자 '일종의 저항'이라는 그의 말이 긴 여운을 남긴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제도권 교육을 거쳐 미술 시장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듯 보이는) 그가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정치-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중심에 이런 '협상'의 장소를 펼치고 우리를 초대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현실의 기저에 있는 실재를 환기시키는 것"이 현실에 저항하는 한 가지 전략이라는 마크 피셔(Mark Fisher)의 논리를 빌어 이해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마이클 딘이 퍼포먼스에서 연주하던 아니, 콘크리트 조각에 긁어대던 전자 기타의 굉음은 자본주의의 폐허 사이를 걷는 구경꾼에게 들려주는 (또는 보여주는) 매끄러운 현실의 표면이 찢어지고 구조화된 환상이 깨지는 일종의 파열음이었다. ⭘

〈삭제의 정원〉 야외 설치 전경 2021